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나주 혁신도시에 구축돼야”

지역정치권·전문가 등 한 목소리 국회 토론회서 시설 필요성 논의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공동건의

첨단기술개발, 미래 신산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구개발시설 안배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한국에너지공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시설을 전남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남도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토론회를 개최해 시설의 국가적 필요성과 그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전남 구축을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회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이윤빈·윤영덕·민형배 국회의원 공동 주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 한국광학회·한국물리학회 광주전남지부가 후원했다. 지역 정치권, 전문기관·학회 등이 한 목소리로 전남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은 기존 원형방사광속기보다 1000배 이상 빠른 최첨단 ‘인공 빛 실험실’로 불린다.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응용 연구,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 연구 시설이다.

토론회에서는 첨단산업의 원천기술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의 국가적 필요성과 그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정영욱 한국광학회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초강력 레이저는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신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반도체 리소그래피, 국방 신무기, 우주 태양광발전 등 국가전략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홍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 레이저 핵융합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석희용 한국물리학회 광주전남 지부장, 김동연 포항공대 교수, 이상구 광주과학기술원(GIST) 초강력레이저연구실장, 박성희 고려대 교수, 한수숙 한국광기술원 레이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한기관 ㈜엔지니어링피직스 대표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신정훈, 이개호, 송갑석, 김희재, 민형배, 서동용, 소병철, 양향자, 윤영덕, 이용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신정훈·이용빈·윤영덕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토론회에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빈, 조오섭, 주철현 의원 등은 연서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그동안 국가 대형 연구시설은 충청과 영남지역에 편중해있고, 호남권에는 전무하다”며 “세계적 규모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나주에 구축하는 것

이 600만 호남인의 염원이고, 이는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은 세계 최초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를 비롯해 광주과학기술원, IBS초강력레이저연구단,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센터, 광주 광산업 단지과 연계해 초강력 레이저를 육성할 최적지”라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반드시 유치해 반도체, 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지역에 육성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설 것”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이날 제시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유치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예정된 정부의 부지 공모심사에 차질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l@kwangju.co.kr

무등산 정상 3년만에 다시 열린다

10월8일 개방행사...민선 8기 100일 맞아 시민들과 소통

방공포대 주둔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출입이 통제된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3년 만에 열린다. <사진>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다음 달 8일 재개된다. 개방 노선은 서석대, 군부대 후문, 인왕봉·지왕봉, 부대 정문에 이르는 900m 구간이다.

2019년 11월 2일 이후 약 3년 만의 정상 개방이다. 이날 행사에는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기초단체장과 담양·화순 군수,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시민과 소통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방공포대 이전을 바라는 메시지 등을 담아 ‘무등산에 보내는 편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방공포대가 주둔하면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다.

2011년부터 봄, 가을을 중심으로 24차례 개방 행사를 통해 45만명이 정상을 탐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을에는 역사와 단풍이 어우러진 장관을 연출한다.

광주시는 방공포대 이전과 함께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도 앞당길 수 있도록 공군 등 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총리, 기시다 면담...“강제징용 해법 모색 공감”

아베 국장 참석차 방일...기시다 “韓측 조의 감사”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8일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모색을 포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國務)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한 총리는 이날 도쿄 모토이카사키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 25분간 면담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을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 젊은이들도 서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 신정부는 한일관계를 조속히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아베 전 총리 사망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기시다 총리에게 조의를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 사망에 대

해 윤석열 대통령 등 한국 측이 조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면담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지난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해결과 양국 관계 개선 복원 필요성에 공감한 것을 토대로 기시다 총리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일관계 개선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고 밝혔다.

조 차관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국 외교 당국 간 협의를 비롯해 다양한 차원에서 소통을 더욱 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의 구체적인 해법 등 의견 표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한일관계를 개선해나가는 데 있어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양측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만 설명했다. /연합뉴스

북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한미연합 해상훈련 반발 분석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25일 제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뒤 사흘 만에 다시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8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6번째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26일 시작해 29일까지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진행하는 연합 해상훈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CVN-76)호를 포함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찬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함단들이 지난 23일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으며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 경매에 관한 모든 것!
오천경매. 010-3605-5000

지분 임야,대지 삽니다
맹지사절. 010-6837-470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합계 939.8㎡ 구(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 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6개월과정)
일시: 2022.9.13 (화) 오후7시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시: 2022.9.6 (화) 오후7시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갈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더블유엠건설(이하 "당사")은 2022년 9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더블유엠건설이 당사를 흡수합병하여 당사의 권리무 일체를 승계하고 당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9월 29일)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상법 제 527조5 제1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각 주주 및 질권자는 이 공고제출일(9월 29일) 이내에 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9일
주식회사 더블유엠건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우산동)
대표이사 박일균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강정재(701229-XXXXXX)
- 최후주소: 광양시 광양읍 호곡길 25, 207동 307호(주공월성아파트)
- 등록기준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245
- 피상속인 망 강정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2-나단53호로 신청하여 2022년 9월 2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9월 29일
- 상속인: 강현구(971106-XXXXXX) 광양시 광양읍 호곡길 25, 302동 503호(주공월성아파트)
- 신고기간: 2022.9.29. ~ 2022.12.9.
- 채권신고처: 상속인 강현구의 주소

산행안내

10월1일(토)
▲광주호산회 10월1일(토) (청와대탐방후 북아산트레킹) 오전 05시 0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 자정출발 05시30분 롯데백화점 05시45분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명상건설(이하 "당사")은 2022년 9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지우공방(이하 "당사")을 흡수합병하여 당사의 권리무 일체를 승계하고 당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9월 29일)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상법 제 527조5 제1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각 주주 및 질권자는 이 공고제출일(9월 29일) 이내에 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9일
주식회사 명상건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우산동)
대표이사 강민석

공장 임대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냉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내

면적: 공장 150평,
냉동창고 200평 (급냉동, 냉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설: 최신기계설비완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액: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227-9600 | 신문구독 220-0551 | 예행구독 220-0550

光州日報

지역안내

북구	• 동 광 266-1920 • 동 중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중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치 명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천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